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

책임작성 |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(02-707-9843, msnoh@kosbi.re.kr)
김수현 선임연구원(02-707-9885), 이정환 선임연구원(02-707-9819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b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| 목 차

1. 서론
2. 중소기업 경영 전망
3. 중소기업 현장 인터뷰
4. 정책과제

| 요약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, 중소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
 - 경제성장률 전망(OECD 평균) : 2.8%('10) → -4.2%('20)
 -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교역환경 변화 가능성
- 중소기업들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, 경제위기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
 - 중소기업의 39.7%는 2021년도 경영환경이 2020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
 - 중소기업의 7.1%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정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
 - 2021년도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저조한 경영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, 부정적인 전망 우세
 - 매출액 : 감소(46.9%), 변화 없음(39.7%), 증가(13.4%)
 - 투 자 : 감소(25.3%), 변화 없음(68.4%), 증가(6.3%)
 - 고 용 : 감소(20.7%), 변화 없음(70.1%), 증가(9.2%)
 -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회복 예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
 - 2021년에 회복될 것이라는 비중이 2020년 5월 조사 대비 10.5%p 감소
 - 중소기업의 33.0%는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

■ 'K자형 성장'에 따른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

- 중소기업 현장의 역성장 우려가 큰 가운데, 일부 중소기업은 꾸준한 성장 예상
-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Two-Track으로 추진할 필요
 - 일반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과 생존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
 -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

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

-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53.3%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응답
- 종업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낮아짐(4점 척도)
 - 50인 이상(2.57), 10~49인(2.50), 5~9인(2.34)
- 비제조업(2.37)이 제조업(2.49)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(4점 척도)

■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

-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지속
 -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
 - 정책목표 달성 시 용자를 보조금으로 전환
 - 청년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
- 중소기업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
 - 온라인 비즈니스 확충과 제조·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모색
 - 사업재편과 업태전환 지원을 통해 손실 최소화와 재도전 기회 부여
 - 상생협력과 인수합병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
-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
 -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·중복 개선과 지원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
 -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

1. 서론

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

- 경제성장률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(OECD)
 - OECD평균 : 2.8%(’10) → -4.2%(’20) / 한국 : 6.2%(’10) → -1.1%(’20)
-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(IIF, 2020)
 - GDP 대비 총부채 비중 : 320%(’20.1) → 362%(’20.9) [42%p ↑]

■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,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 추진

- 전년동월대비 중소기업 고용 규모 감소(통계청, ’20.11 기준)
 - 중소기업 취업자 : 1.4%(34.3만명) ↓ /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: 7.8%(11.4만명) ↓
-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(한국은행, ’19.11~’20.11)
 - 중소기업 : 11.7%(84.6조원) ↑ / 개인사업자 : 13.7%(46.4조원) ↑
-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
 - 1차: 11.7조원(3월), 2차: 12.2조원(4월), 3차: 35.1조원(7월), 4차: 7.8조원(9월)

■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증가

-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
 -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국내 소비부진과 소상공인 경기위축
 - 중소기업 현장의 주52시간 근로제 본격 적용과 비대면 근무 확산
- 미·중 갈등과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가능성
 - 환율 하락(원화 절상), 유가 상승, 운송비용 증가 등

■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

-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2. 중소기업 경영 전망¹⁾

가. 경영여건

■ 경영환경

- 중소기업의 39.7%는 2021년도 경영환경이 2020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.6%에 그쳤음
 - 중소기업의 52.7%는 2020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
- 2021년도 경영환경이 2020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종업원 5~9인 기업에서 가장 높았음
 - 5~9인(42.2%), 50인 이상(38.0%), 10~49인(36.8%) 기업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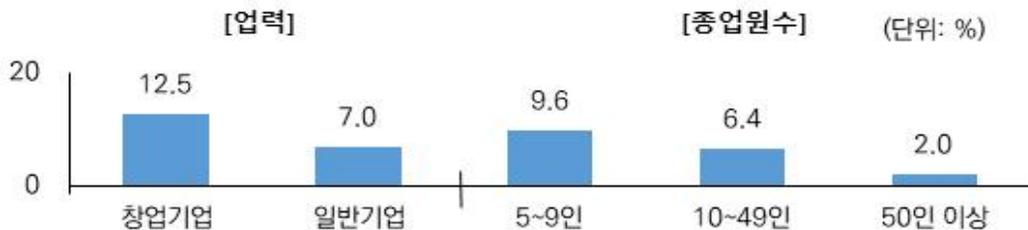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(2021)



■ 사업정리 검토 여부

- 중소기업의 7.1%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정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
 -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(12.5%)과 5~9인 기업(9.6%)에서 높게 나타남

[그림 2] 코로나19 이후 사업정리 검토 중소기업 비중



1) 2020. 12. 4(금) ~ 16(수)까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(95% 신뢰수준, 허용오차 ±4.29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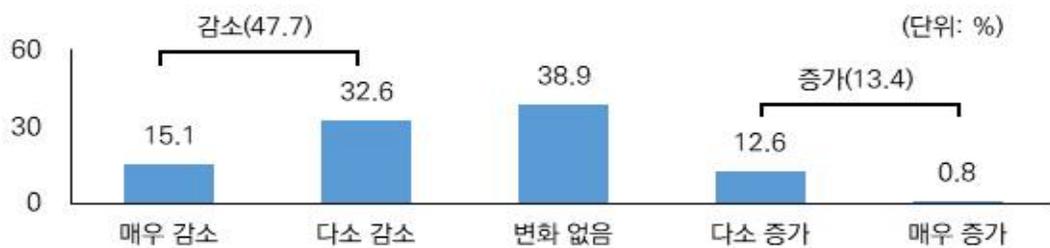
나. 경영활동

(1) 매출액

■ 실적

- 중소기업의 47.7%는 2020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, 증가했다는 대답은 13.4%에 불과했음
 - 중소기업의 38.9%는 상반기 대비 변화 없다고 응답
- 2020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은 종업원 5~9인 기업에서 가장 높았음
 - 5~9인(51.8%), 10~49인(45.0%), 50인 이상(42.0%) 기업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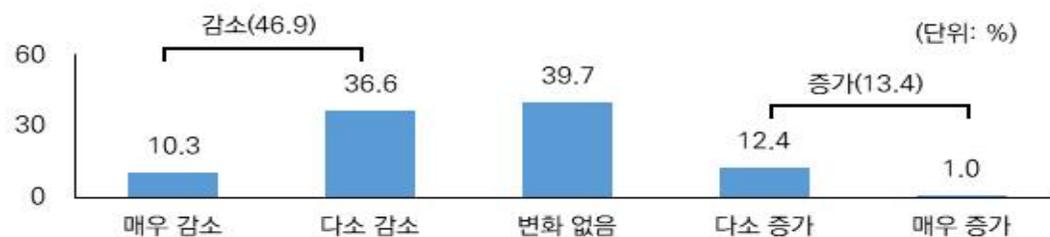
[그림 3] 중소기업 매출액 실적(2020 하반기)



■전망

- 중소기업의 46.9%는 2021년도 매출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은 13.4%에 그쳤음
- 2021년도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종업원 5~9인 기업에서 가장 높았음
 - 5~9인(49.8%), 50인 이상(46.0%), 10~49인(43.3%) 기업 순

[그림 4] 중소기업 매출액 전망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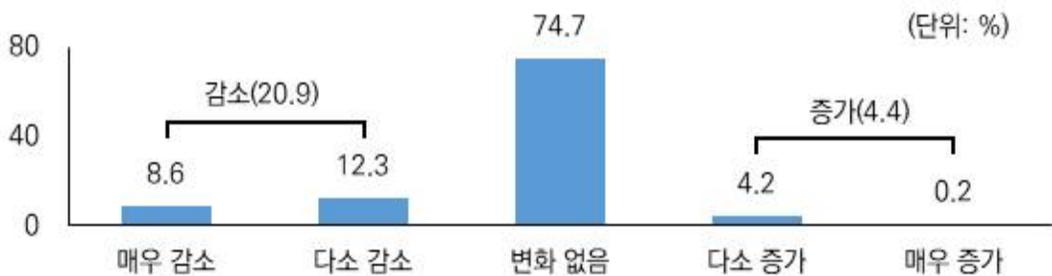


(2) 투자

■ 실적

- 중소기업의 20.9%는 2020년도 하반기 투자가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, 증가했다는 대답은 4.4%에 불과했음
 - 중소기업의 74.7%는 상반기 대비 변화 없다고 응답
- 2020년도 하반기 투자가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(62.5%)이 7년 이상 일반기업(20.2%) 대비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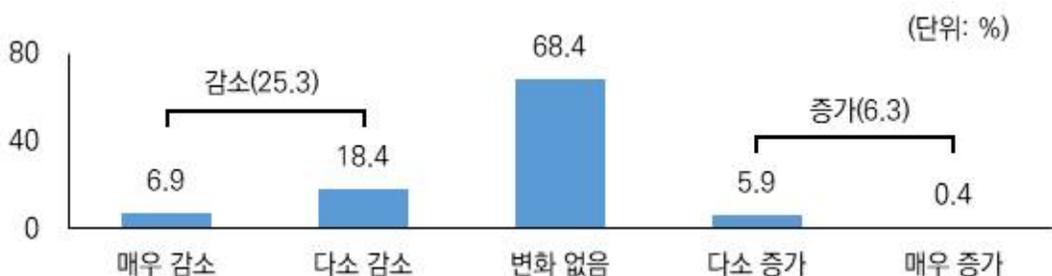
[그림 5] 중소기업 투자 실적(2020 하반기)



■ 전망

- 중소기업의 25.3%는 2021년도 투자가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은 6.3%에 그쳤음
- 2021년도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(50.0%)이 7년 이상 일반기업(24.9%) 대비 높게 나타남

[그림 6] 중소기업 투자 전망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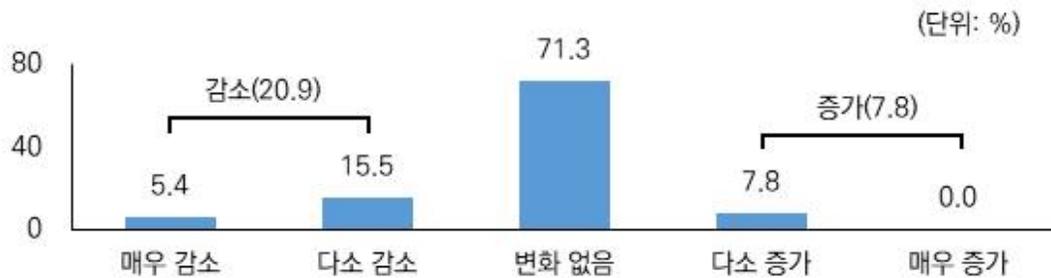


(3) 고용

■ 실적

- 중소기업의 20.9%는 2020년도 하반기 종업원 수가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, 증가했다는 대답은 7.8%에 불과했음
 - 중소기업의 71.3%는 상반기 대비 변화 없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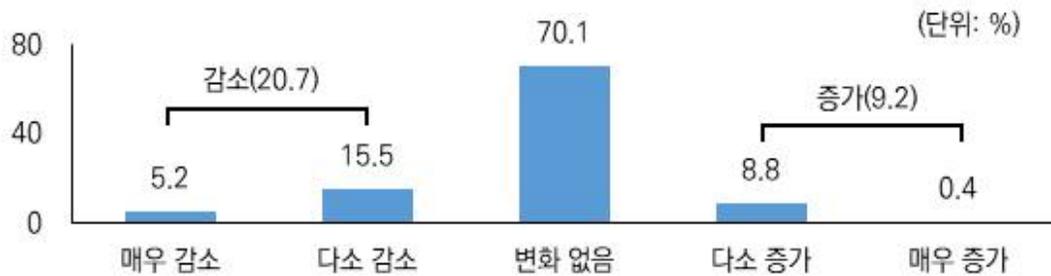
[그림 7] 중소기업 종업원 수 실적(2020 하반기)



■전망

- 중소기업의 20.7%는 2021년도 종업원 수가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은 9.2%에 그쳤음
 - 중소기업의 70.1%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전망
- 2021년도 종업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비제조업(24.6%)이 제조업(17.3%) 대비 높게 나타남

[그림 8] 중소기업 종업원 수 전망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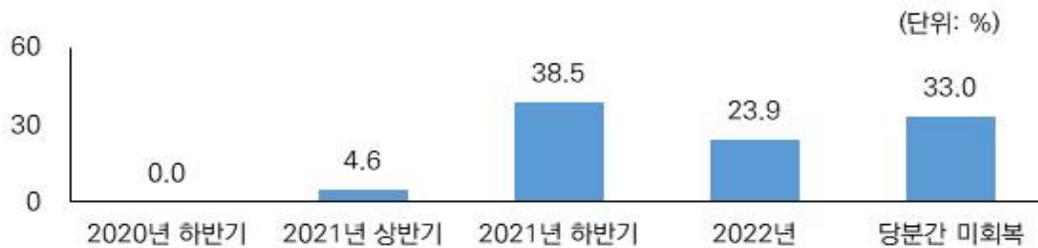


다. 경기회복 시점

■ 전망

- 중소기업의 38.5%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2021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,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(33.0%)도 높게 나타남
 - 2021년 상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4.6%에 불과했음
-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종업원 5~9인 기업에서 가장 높았음
 - 5~9인(35.9%), 10~49인(31.6%), 50인 이상(28.0%) 기업 순

[그림 9]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시점



■ 조사결과 비교

-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회복 예상 시점은 2020년 5월 조사²⁾와 비교했을 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응답 비중 감소 : '20년 하반기(5.5%p ↓), '21년 상반기(25.4%p ↓)
 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수요부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약 가능성에 기인

〈표 1〉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시점

(단위: %, %p)

구분	'20년 하반기	'21년 상반기	'21년 하반기	'22년	당분간 미회복
'20.05 조사(A)	5.5	30.0	23.6	8.9	32.0
'20.12 조사(B)	0.0	4.6	38.5	23.9	33.0
증감(B-A)	△5.5	△25.4	14.9	15.0	1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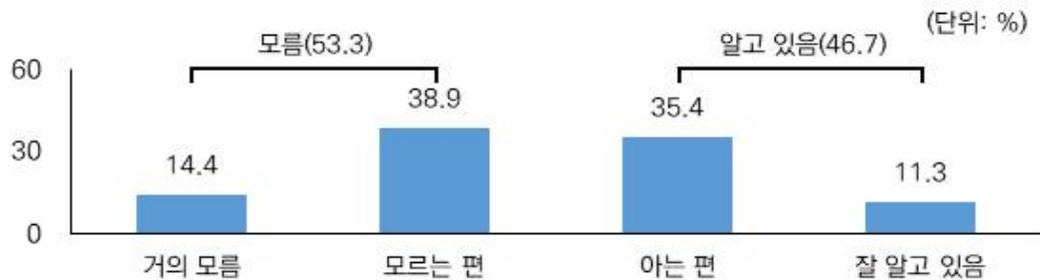
2) 노민선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, 중소기업연구원, 2020.

라.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지도

■ 종합

- 중소기업의 53.3%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응답
 - 중소기업의 14.4%는 거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, 38.9%는 모르는 편이라고 대답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지도를 4점 척도*로 살펴보면 2.44점 수준
 - * 거의 모름(1), 모르는 편(2), 아는 편(3), 잘 알고 있음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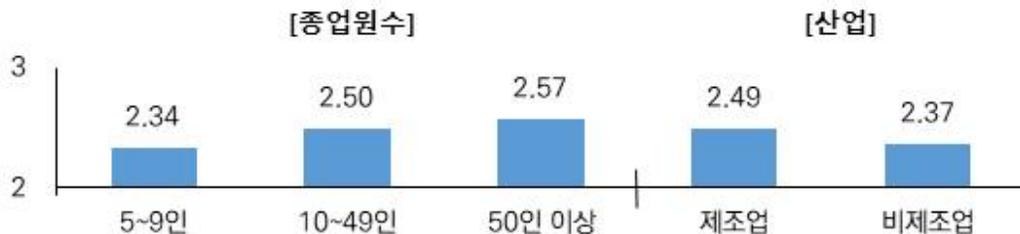
[그림 10]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지도



■ 유형별

- 종업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지도가 낮아짐
 - 50인 이상(2.57), 10~49인(2.50), 5~9인(2.34) 기업 순
- 비제조업(2.37)이 제조업(2.49)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

[그림 11]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지도(4점 척도)



* 주: 거의 모름(1), 모르는 편(2), 아는 편(3), 잘 알고 있음(4)을 가중하여 계산

3. 중소기업 현장 인터뷰³⁾

가. 소상공인

■ 개요

- (소재) 경상북도, (분야) 수산물 도매, (매출) 연 8억원, (종업원) 4명

■ 주요 내용

-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%의 매출 감소 → 다른 업체 대비 그나마 나은 편
 - 거래처 사장을 만나면 '안녕하세요' 대신 '다른 곳도 이래요?'라고 인사
- 수산물을 납품받는 음식점의 경영환경 악화
 - 종업원 수를 줄이고, 바쁠 때마다 시간제로 여성 종업원을 활용
 - 최근 들어 음식점에 납품한 수산물에 대한 미수금이 크게 증가
-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, 사업 전환이나 재도전 지원 확대 필요
 - 사업정리를 고민하고 있지만,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

나. 일반 제조업

■ 개요

- (소재) 경기도, (분야) 광고물·사인물 제조, (매출) 연 20억원, (종업원) 20명

■ 주요 내용

- 전시 취소 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70%의 매출 감소
-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로 전시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
 - 납품단가가 낮아져 이윤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, 업계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
- 소규모 전시 기획 확대 등 전시 산업 활성화 정책 필요
 - 전시 행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판로 개척의 중요한 통로

3) 2020. 12. 14(월) ~ 21(월)까지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

다. 전통 제조업(뿌리산업)

■ 개요

- (소재) 서울, (분야) 합금공구강 제조, (매출) 연 40억원, (종업원) 12명

■ 주요 내용

- 업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%의 매출 감소 → 일부는 폐업
 - 향후 2~3년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대내외적 이슈로 인해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
 -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내국인 종업원은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음
 -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, 코로나19로 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
-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
 - 최근 생산성이 높은 기계로 교체하는 등 공장 자동화를 확대해가는 추세

라. 첨단 제조업

■ 개요

- (소재) 충청남도, (분야) 반도체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, (매출) 연 35억원, (종업원) 37명

■ 주요 내용

-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과 고용이 증가
 - 종업원 임금 수준이 높으며,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
- 원-하청 관계가 과거 대비 개선되고 있지만, 안정적 협력 관계 필요
 - 직원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고가여서 구매가 어려우며, 주로 원청업체에서 보유
 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요청이나 과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
 - 납품완료 후 계산서 발급시기 조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
- 원-하청업체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

4. 정책과제

가. 분석결과 시사점

■ 중소기업들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, 경제위기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

- 매출액, 투자, 고용 모두 '감소'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'증가'보다 많았음
 - 2020년도 저조한 경영실적에 대한 기저효과*에도 불구하고, 부정적인 전망 우세
 - *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

〈표 2〉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망('20년 대비)

(단위: %)

구 분	감 소	변화 없음	증 가	5점 척도*
매출액	46.9	39.7	13.4	2.57
투 자	25.3	68.4	6.3	2.75
고 용	20.7	70.1	9.2	2.84

* 주: 매우 감소(1), 다소 감소(2), 변화 없음(3), 다소 증가(4), 매우 증가(5)를 가중하여 계산

-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회복 예상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
 - 2021년에 회복될 것이라는 비중이 2020년 5월 조사 대비 10.5%p 감소
 - 중소기업의 33.0%는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
- 'K자형 성장'에 따른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
 - 중소기업 현장의 역성장 우려가 큰 가운데, 일부 중소기업은 꾸준한 성장 예상
 -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Two-Track으로 추진할 필요
 - 일반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과 생존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
 -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확보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
-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
 -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53.3%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응답
 - 소규모 기업과 비제조업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나. 정책과제

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지속

- (현황) 중소기업의 46.9%가 2021년도 매출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(p.3)하는 등 당분간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
- (개선)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 확대
 - 피해가 집중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
 - 정책목표 달성 시 용자를 보조금으로 전환
 - * (사례) 미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(PPP)
 - 청년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
 - * (예)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,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 강화 등

■ 중소기업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

- (현황)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12.5%, 5~9인 기업의 9.6%가 코로나19 이후 사업정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(p.2)
- (개선) 디지털화, 사업전환,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
 - 온라인 비즈니스 확충과 제조·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모색
 - 사업재편과 업태전환 지원을 통해 손실 최소화와 재도전 기회 부여
 - * (사례) 일본은 1조 1,485억엔의 ‘중소기업 사업재구축보조금’ 예산 편성('20.12)
 - 상생협력과 인수합병 지원*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
 - * (예)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 단축, 기술혁신형 M&A 세액공제율 확대 등

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

- (현황)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1,754개('20년)로 최근 3년간 30.2% 증가 (중소기업연구원, 2020)
- (개선)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·조정 기능 강화
 -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·중복 개선과 지원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
 -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

참고자료

- 노민선(2020), 「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」, 중소기업연구원.
- 중소기업연구원(2020), 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분석」.
- 통계청(2020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- 한국은행(2020), 「금융시장 동향」.
- OECD(2010), 「OECD Economic Outlook, Volume 2010 Issue 2」.
- OECD(2020), 「OECD Economic Outlook, Volume 2020 Issue 2」.
-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(2020), 「Global Debt Monitor: Attack of the Debt Tsunami」.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이병헌

편집인 : 이동주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

-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